

사회

6·2 민심 화제의 당선자

광주 서구의원 된 이병완 전 대통령비서실장

“소중한 풀뿌리 민주 실천할 것”

대통령 비서실장의 화려한 경력에도 광주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참여당 이병완(55) 후보의 ‘신선한 도전’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그(故)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광주 서구 다산거꾸(풍암동, 화정 3·4동) 구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후보의 기초의원 선거 출마는 범상치 않게 받아들여졌다. 국정운영의 요직을 거쳤던 인사가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시도였기 때문이다.

애초 광주시장 선거에 나섰던 그는 단일화를 통해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한 후 구의원 선거로 방향을 틀었다.

이 후보는 “국민참여당 창당 당시부터 기초의원에 출마할 생각이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 김해 시의원 출마를 검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유세차량



광주 서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참여당 이병완(오른쪽 두번째) 후보가 당선 확정 소식이 전해진 3일 새벽 1시 지지자들에게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과 마이크, 어깨띠가 없는 ‘3무(無) 운동’을 통해 묵묵히 표발을 일켰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부터 충실히 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편의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신선한 시도들은 유권자

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참여정부 시절 요직을 두루 거친 중량감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인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었다. 대학생 정은지(여·21)씨는 “노

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구의원 출마해 큰 기대를 걸었다”면서 “민주주의의 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례적인 도전이 값진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천안함 조작” 유인물

1일 밤 광주우체국 앞길 뿌려... 경찰 수사 종교·사회단체·대북교역 업체에 괴서한

광주 도심에서 ‘천안함 사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담은 유인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9시20분경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길에서 ‘천안함 사태의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뿌려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5(18.2cm·세로 25.7cm) 크기 한 장 분량의 유인물에는 ‘천안함 사태의 진실은 무엇인가?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는 현 정부에 의해 날조된 것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일으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이다. 정부의 발표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6·2 선거에서 여당에 투표하면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쟁 위기가 고조돼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10여명이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목적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한편, ‘천안함의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는 괴서한이 국내 종교·사회단체

체에 무더기로 발송된 데 이어 대북교역업체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 서울 3곳과 인천 1곳 등 대북교역업체 4곳에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서한이 팩스로 수신됐다.

A4용지 5장짜리로 된 편지에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는 제목으로 북한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보냈으며, 발송처는 중국 베이징과 단둥에 있는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으로 돼 있다.

민경련은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공식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곳을 통해 선전선동의 목적을 담은 서한이 국내로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서한은 앞서 국내 종교·사회단체와 정당 등 17곳에도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해 도착한 바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상당 부천공업과 여수 보안산업, 완도 휴익산업 등 광주·전남 업체 3곳이 입주해 있으나 이들 업체에는 서한이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8037) 김중두



숨진 영아 버린 3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2일 출산중에 숨진 아이를 가방에 넣어 광주의 한 여성보호시설에 버린 A(여·33)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 광주시 서구 모 여성보호시설 2층 숙소 배란다에 숨진 자신의 아이를 두고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이 보호시설에서 지내왔으며, 최근 직장을 얻어 퇴소한 뒤 사생아를 낳자 영아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자살’ 지난해 1만4000여명

2008년보다 20% 증가

지난 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2008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1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자살 사망자는 1만4579명으로 2008년(1만2270명)보다 18.8% 늘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는 2005년 1만4011명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2006년 1만2968명, 2007년 1만3407명, 2008년 1만2270명으로 주춤하다 4년 만에 다시 1만4000명을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이 4614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70명(18.9%)으로 뒤를 이었다. 30대(17.2%), 50대(16.6%), 20대(12.2%) 순이었다고 20세 이하도 3%(452명)에 달했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50대가 31%(575명) 늘어 가장 높았고 20세 이하에서 29%(102명)가 증가했다. 30대도 20.3%(424명) 늘었다. 특히 20대

자살은 2005년 1428명을 기록하고 2006년 1148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 3년간 최대 35%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말미암은 자살이 4123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190명(21.8%)을 기록한 육체적인 질병 문제였다. /연필뉴스

운암동 50대 음독 숨져

지난달 31일 밤 10시30분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사는 한모(58)씨가 극약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아내(53)가 발견,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나 1일 오전 9시25분경 숨졌다.

두 자녀를 둔 한씨는 도배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 왔으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고 전세금마저 올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지장 찍고 투표” 소란 40대 귀가조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분증 확인 대신 지장을 찍고 투표를 하겠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40대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분증 확인 대신 지장을 찍고 투표를 하겠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40대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

○...경찰에 이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투표를 하지 못한 채 귀가.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돈 살포 순천시장 후보 운동원 영장

경찰, 명단 확보 수사

순천경찰은 2일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모 순천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원 김모(여·52)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밤 순천시 서면 일대 마을을 돌며 모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유

권자들에게 2만~10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유권자 10여명에게 현금을 건넨 내역이 적힌 명단을 확보하고 돈을 전달한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 중이다. 김씨는 그러나 “일부 주민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후보와는 관계없다”고 진술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투표소 앞 후보 비방

북부경찰, 5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일 광주시 북구의 한 투표소 앞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자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A씨(53)는 이날 오전 8시20분경 광주시 북구 두암동 두암중학교 제3교구소 앞에서 특정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비용을 주지 않았으며 고함을 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간 큰 농협 여직원

주민 공과금 등 1억6200만원 횡령

횡령한 1억6200만원을 어디에 썼을까? 농협중앙회 소속 여직원이 역대 주민 공과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2일 농협 강진군지부와 강진경찰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강진군청 출장소에서 근무 중인 김모(여·28)씨가 지난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국고공과금·지방공과금 등 주민들이 낸 1억 6200만원의 각종 공과금 등을 횡

령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고액 보관용 영수증을 남부 고객에게 건네주고 농협 보관용 영수증(전표)을 농협 강진군지부에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남편의 PC게임방을 강진에서 북포로 이전하면서 전세금 3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과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김씨를 대기발령 하고 횡령한 돈은 환수조치키로 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금당 공인중개사 T.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감정가 이하... 4층 상가주택 신안동 4차선 도로변 대지 184㎡(56평) 건물 461㎡(136평) 대출 1억 매도 2억5천

주택·아파트·임대... 아파트 연세동 현대 201㎡ 대출1억 교환가능 1억5천

부동산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대인동삼일부동산...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건물매매

부동산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부동산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부동산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